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25)

말라위 사역에 동참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부활 승천하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감격스런 부활절 행사를 가졌습니다.

COVID-19 여파로 전국의 교도소 수용인원을 대폭 감축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제일 먼저 영향 또는 타격을 받은 곳이 저희 마칸디  
교도소입니다. 즉, 재범위험이 적은 수형자들이 우선적으로  
특별사면의 대상자들이 되었기에 기독교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저희 교도소의 많은 재소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평소  
300 명 안팎의 수용자 인구가 지금은 절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안되는 가운데에서도 40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그러나 실족하여 교도소에 오게 된) 몇몇 동료 수형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성만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모두는 빵과 음료수를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파티도 가졌습니다.

기빠하는 재소자들을 보며 십자가 언덕에 가장 늦게까지 있다가 부활하신 무덤에는 가장 일찍  
갔었던 몇몇 여인들의 헌신이 생각났습니다. 위험까지 무릅쓴 헌신의 행위로 그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새벽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는"(엡 4:28)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그들의 기빠하는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 장이  
본문이었던 성경암송대회에서 영어부문 1 등상을 수상한 메디슨 파울(Madison Paul)이 은혜의  
감격에 겨워 눈물을 삼키며 한절 한절 마지막 절까지 완벽하게 마치자 모두는 우리와 같은  
박수와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장 바닥인 교도소에서  
보게 되는 천국의 예고편 영상과 같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5 개 초등학교와 150 여개의 유아원에 지원하고 있는 급식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3 주에 걸쳐 이들 초등학교들을 하나씩 방문하여 급식진행상황과 취사시설의 낙후 여부를 살피고 성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각각의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부모회 임원진, 마을 추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땀감의 부족과 같은 만성적인 역경 가운데에서도 먹을 기대에 부풀어 학교에 온 어린이들로 하여금 맛있게 한끼 음식을 즐기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방문에서 파악된 학교들의 노후된 취사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건축인부들을 파견하여 약 한달 간 공사를 하여 지난 주말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성들의 권익은 항상 뒷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수형자들의 삶의 실태야 오죽하겠습니까. 제 2 급식공장이 세워진 카송구 교도소에는 약 40 명의 여성 재소자들을 수용되어 있습니다. 갈대로 열기설기 엮어진 '담'이나 하루종일 내려쬐는 뜨거운 햇볕과 쏟아지는 비를 피할 공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벽돌로 된 담과 지붕이 있는 쉼터공사를 일단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여러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 돌맹이 세개 위에 솔 걸어놓고 하던 원시적인 취사 방식 대신 저희가 개발한 신형 부뚜막이 설치된 취사장 건물 공사와 그릇도 씻고 빨래까지

할 수 있는 빨래터, 빨래 건조대, 옥외화장실 등 재소자이기에 앞서 여성으로써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저곳에 잔디까지 입히고 꽃나무를 가꾸게 하는 등 여자 교도소 다운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도시에서만 하루에 10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로부터 어지간히 해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조심하며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주안에서 평강을 빕니다.

말라위에서 김용진 올림